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8일 목요일 음 2월 6일 (13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대체로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0°C, 낮 최고기온은 16-18°C로 전망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and cloud cover forecasts for the day and week.

Table with sunrise, 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few days.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like UV index and pollen count.

월드뉴스

‘옥스퍼드 입학’ 거짓말로 파괴된 감동

엄마는 꽃 팔며 유학비 보내

터키의 한 엄마가 명문대에 합격한 딸의 학비 마련을 위해 공동묘지에서 수년간 꽃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딸은 대학에도 들어가지 않고 돈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모지서 꽃 파는 엄마와 돈을 지원받은 딸.

16일 (현지시간) 영국 대중지 데일리 미러 등에 따르면 터키 여성 굴세렌 보즈쿠르트(57)는 지난 10여 년간 터키 남동부 안타키아의 공동묘지 앞 길가에서 꽃 장사를 해왔다. 그는 꽃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함과 동시에 5년 전부터는 옥스퍼드 의대에 합격했다는 25살 딸 메르베 보즈쿠르트의 유학비도 지원했다.

하는 엄마와 명문 의대에 진학한 딸의 사연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 이후 드러났다. 후원자들이 딸을 돕기 위해 옥스퍼드대에 연락했더니 '메르베 보즈쿠르트'라는 학생은 입학한 사실이나 대학에 등록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리일보 masthead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오 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최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한창 만들어지고 있다. 이 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도내 최상위 계획이다.

제주 비전에서 문화란?

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주 문화 정체성이 밑바탕이 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쉽게도 현재 운영 중인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문화 정체성에 대한 밑그림보다 문화예술산업을 가장한 문화시설 확충만 제시되었다.

조성에 초점이 됐다. 지금 3차 종합계획에서 문화분야는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유지하고, 음악당을 조성한다는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융복합 활동 공간과 공동체 단위 거점 공간 조성에 포커스가 쏠렸다. 제주관광공사나 JDC가 사업추진 주체가 돼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같은 국제 수준의 음악당을 건립하고, 뉴욕현대미술관 같은 미술관을 제주에 유치하면서 고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

국제 수준의 음악당 건립이란 사업들이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육성 사업은 아닐 것이다. 지역문화는 지리적 특성에 적합한 사람들의 활동 결과물인 문화적 차 별성과 특수성을 말한다. 문화적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재화가 되는 현대에 지역문화를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도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기본적 지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지역에 내재된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고있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열린마당

제주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 추진을 보며



박 소 정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나는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라는 글귀를 보면서 시작된 경찰 교육을 마치고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실습중인 새내기 경찰관이다. 최근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가정폭력, 데이폭력 등 사회적 약자측면에서 경찰이 적극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람찬 직장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만의 해결은 왜 어려운 것일까



오 미 옥 제주코로나대응방역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마스크와 손 씻기 습관은 감기 원인인 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이 감소했다. 이는 반가운 결과이지만 반대로 비만은 급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개인 생활실천 습관 파악이 중요 하다. 그리고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있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비만의 해결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올바른 식생활 충분한 수면이 이뤄져야 하며 건강 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도내 6개 보건소에서는 아동 비만예방사업으로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대상 어린이 돌봄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생 대상 건강증진 학교 만들기, 성인 비만관리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자 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 상담 정보 등을 받을 수가 있다.

Advertisement for Jeju Hanrae Garden featuring domestic products like watermelons and citrus fruits.

Advertisement for Hanlim Nursery (한림종묘) listing various citrus varieties and their prices.

Advertisement for Gamgul Nursery (감굴신품종분양) listing citrus varieties and their prices.

Advertisement for Gamgul Nursery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listing citrus varieties and their prices.